

## 복음의 은혜, 해방시키는 권위

인사말	1장	비난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의 소명		
일치의 추구		
복음의 진리를 옹호함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		

## 믿음,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

갈라디아인들에게 호소함	3장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인의 자유	4장	부탁들
할례 수락의 함축적 의미	5장	

## 자유, 성령과 사랑의 삶

자유와 사랑, 영과 육	5장	
성령의 요구, 결론적 후기	6장	서명

- \* 갈 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 \* 갈 3:3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 \* 갈 4:6-7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 \* 갈 5:5-6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험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갈라디  
아서

어디수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2020 사순절 드라마바이블 0403 첫 번째 |  
갈라디아서 전체 개관

‘사도바울이 갈라디아교인들에게 보낸 내용증명.’

갈라디아서는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바울의 단호한 어투로 시작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황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고, 교인들은 그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이를 ‘배교’로 여겼습니다(1:6, 4:8-9, 5:4).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른복음’을 들은 후 할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5:2-4).

유대인들의 절기규정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4:8-11).

‘다른 복음’은 이스라엘의 선민의식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을 백성=유대인이라는 신념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도 자신들의 동료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행11:19).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미혹했습니다.

유대인의 표지인 할례와 유대 절기에 관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그들이 강요하는 ‘율법’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외적인 표지들

뿐이었습니다(6:12-13). 사랑이나 정의 같은 도덕적 요구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을 향해 강한 어조로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3:3).”

뒤이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구속, 성령의 역사에 관한 복음을 전합니다.

## 갈라디아서의 메시지

### ❶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4:4).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2:16, 4:5).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모두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구원받을 길이 열렸습니다(3:13-14).

### ❷ 하나님은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셨습니다(4:6).

십자가를 통한 구속과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으로 새 출발의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대속으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4:5).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4:6-7).

종일 때에는 바랄 수 없던 ‘미래’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매일 예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영원한 삶’에 더욱 가까이 가게 됩니다.

믿음에서 나는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5:5).

### ❸ 우리는 성령으로 새로 지음 받는 새 창조의 삶을 살게 됩니다(6:15).

우리 삶에 아들의 영,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우리 삶에 미칩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신실한 삶을 살며 달음질하는 사람들입니다(5:7).

성령으로 사는 자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5:16-21).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을 위해 심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5:22-25, 6:8).

사랑의 방식,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5:6).

믿음을 통해 약속한 성령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운운하는 것에 바울은 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할례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삶에서 등을 돌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성령에서 벗어나 사랑의 삶을 팽개치고(5:6) 육신적인 표지들에 집중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죄가 다스리는 ‘육체’의 정체성에 관심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구속과 새로운 창조,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 갈라디아서 산책(권연경), 두란노 How 주석, 현대성서주석 Interpretation